

# 강달러에 원화·엔화 동반 흔들... 외환시장 공동 대응 확인

환율 급변동·무질서한 흐름 점검  
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 지속키로  
통화스와프 등 금융협력 확대 논의  
WGBI 편입·투자환경 개선도 평가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기에 앞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화와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대응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재무성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 경제상황, 양국 경제정책, 경제·금융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환율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면담에서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비롯해 국제 투자자와의 소통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일본 기관투자자의 한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도 언급됐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했다. 차기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상은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

만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등의 성장 분야 투자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윤철 부총리는 면담 직후 주일 특파원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기한을 앞둔 한일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의 연장 여부 관련해서는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일 100억 달

러 규모, 3년 만기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는 또 전날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언급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또 "1년 이내에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한일 AI 협력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메모리 쪽이 뛰어나고 일본은 로봇 관제에 강점이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이 각기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히토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한국보다는 낮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통상·공급망 정책대화 신설

# 핵심광물·LNG 협력 확대

정례 소통창구 가동, 현안 상시 점검  
교란 조짐 땀 통보·요청시 긴급회의  
유사 입장국 공조 확대, 광물투자 협력  
LNG 스왑 등 수급안정 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통상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 정례적인 장관급 소통채널을 가동한다. 또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 시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해 통상 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산업·통상 현안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례 협력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산업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SCPA)'을 체결했다.

SCPA는 ▲공급망 교란 징후 발견 시 상호 통보 ▲교란 발생 시 요청하면 5일 내 긴급회의 개최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자제 ▲핵심 광물 공동 탐사·투자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4(현지시간)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참석 계기에 아카자와 료세이(赤澤 亮正)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로 한다.

특히 핵심 광물과 자원 분야에서 공동 탐사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LNG 수급 안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스왑 등을 포함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양국은 LNG 수급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히 LNG 스왑 등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Aa2**  
Moody's 국제 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